
“위기를 기회로”

**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
2026년도 추가경정예산(안)**

'26. 3.

기 획 예 산 처

목 차

I. 편성 방향	1
II. 재정 총량	2
III. 주요 내용	3
1. 고유가 부담 완화	4
2. 민생 안정	6
3.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	9
4. 지방재정 보강 등	11

I. 편성 방향

□ **(배경)** 대외여건 변화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확대 중

- 중동전쟁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, 수급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*으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

* 두바이유(\$/b): ('26.2.26)68 (3.2)77 (3.6)99 (3.13)127.9 (3.19)138 (3.20)134 (3.24)134

- 저소득층, 소상공인, 청년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특히 가중되어 소상공인 체감경기*, 청년고용** 부진 등 양극화 구조 고착화 우려

* 소상공인 체감BSI : ('25.10)79.1 (11)75.0 (12)70.3 ('26.1)66.9 (2)68.1 <'25.10월 고점 후 하락세>

** 청년고용률(%p, 전년동기비) : ('25.3Q)△1.1 (4Q)△0.9 ('26.1)△1.2 (2)△1.0 <22개월 연속 하락>

- 해운·물류 비용 상승*에 따라 수출기업이 직접 타격을 받으며,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석유화학 등 관련 산업 위축 가능성

* SCFI(상하이 컨테이너운임) 지수 : ('26.2.13)1,251 (3.6)1,489 (3.13)1,710 (3.20)1,707

□ **(기본방향)**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선제적 지원

- 민생과 피해 기업·산업의 어려움 경감을 위한 사업 적극 추진
 - ①유류비 지원 등을 통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
 - ②저소득, 소상공인, 취약 노동자, 청년 등 민생 안정 지원
 - ③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·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,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에너지·신산업 전환, 공급망 안정
-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여 국채·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

⇒ “적극재정→경제성장→지속가능 재정”의 선순환 기조 유지

Ⅱ. 재정 총량

□ 총 26.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편성

- (규모) 26.2조원
 - ①고유가 부담 완화 10.1조원, ②민생 안정 2.8조원,
 ③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.6조원
 ④지방재정 보강 등 9.7조원, ⑤국채상환 1.0조원
- (재원)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.2조원,
 기금 자체재원 1.0조원 활용

□ 총지출은 전년 대비 11.8% 증가 (727.9→753.1조원) GDP 대비 관리수지는 △3.8%, 국가채무 비율은 50.6%

- (관리재정수지) 본예산 대비 +0.2조원(△107.8→△107.6조원)
 GDP 대비 +0.1%p(△3.9→△3.8%)
- (국가채무) 본예산 대비 △1.0조원(1,413.8→1,412.8조원)
 GDP 대비 △1.0%p(51.6→50.6%)

(단위: 조원)

	'25년		'26년	
	본예산	2회 추경	본예산	추경안
◇ 총수입 (증가율, 전년비)	651.6 (6.4)	642.4 (4.9)	675.2 (3.6)	700.6 (7.5)
◇ 총지출 (증가율, 전년비)	673.3 (2.5)	703.3 (7.1)	727.9 (8.1)	753.1 (11.8)
◇ 통합재정수지 (GDP대비, %)	△21.7 (△0.8)	△60.8 (△2.3)	△52.7 (△1.9)	△52.5 (△1.9)
◇ 관리재정수지 (GDP대비, %)	△73.9 (△2.8)	△111.6 (△4.2)	△107.8 (△3.9)	△107.6 (△3.8)
◇ 국가채무 (GDP대비, %)	1,273.3 (48.1)	1,301.9 (49.1)	1,413.8 (51.6)	1,412.8 (50.6)

Ⅲ. 주요내용

기본
방향

◇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①고유가 대응, ②민생 안정, ③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대 분야에 중점

주
요
내
용

총 26.2조원

① 고유가 부담 완화 10.1조원

- ▶ 전국민 부담 경감(석유 최고가격제, 대중교통 환급) 5.1조원
- ▶ 고유가 피해지원금 4.8조원
- ▶ 에너지 복지 0.2조원

② 민생 안정 2.8조원

- ▶ 취약계층 일상 회복 뒷받침 0.8조원
- ▶ 청년 창업·일자리 지원 1.9조원
- ▶ 고물가 대응 0.1조원

③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.6조원

- ▶ 피해기업·산업 지원 1.1조원
- ▶ 에너지·신산업 전환 0.8조원
- ▶ 공급망 안정화 0.7조원

④ 지방재정 보강 등 9.7조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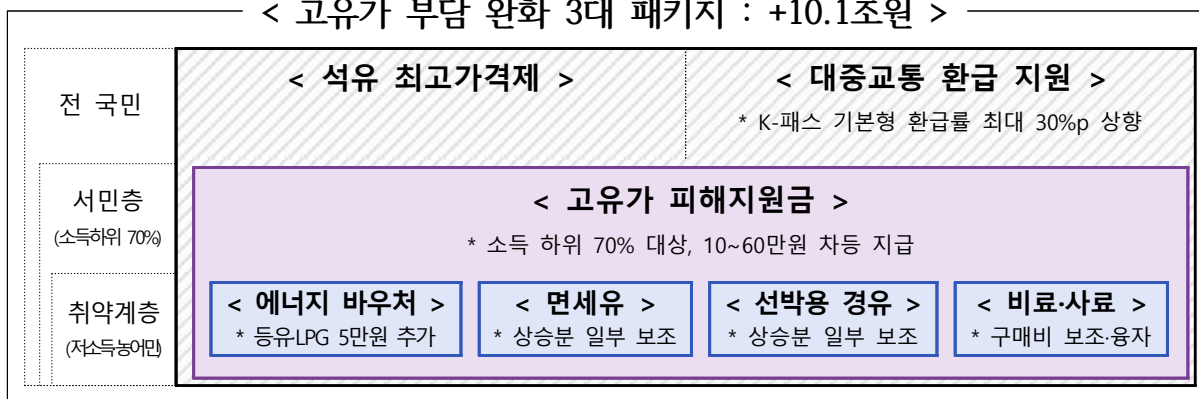
* 지방정부의 투자여력 확충을 위한 교부세(금) 증액 등

⑤ 국채 상환 1.0조원

1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

+10.1조원

◇ 전국민(석유 최고가격제, 대중교통 환급), 서민층(고유가 피해지원금), 취약부문 3단계로 촘촘하고 두터운 **고유가 대응 안전망** 구축



1 전국민 유류비·교통비 경감

+5.1조원

【 석유 최고가격제 등 : +5.0조원 】

- 기름값 안정 및 전국민 유류비 절감을 위한 ‘석유 최고가격제’의 차질 없는 추진 등에 필요한 재원 보강
 - 휘발유, 경유(선박용·차량용), 등유를 대상으로 지정하여 폭넓게 지원
 - * (3.13일) 휘발유, 차량용경유, 등유 대상으로 지정 고시
 - (3.27일) 선박용경유를 추가 지정하여 어업인·영세 화물선주도 지원대상에 포함
- 현 상황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, 유류비·외화 예산 부족 대응 등에 필요한 소요도 포함

【 대중교통 환급 지원 : +877억원 】

-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과 더불어 K-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확대(최대 +30%p, 기본형)하여 대중교통 이용 유도 및 교통비 경감

	저소득	3자녀	청년·2자녀·어르신	일반
환급률(15회이상 이용시)	53→83%	50→75%	30→45%	20→30%

② 신규 고유가 피해지원금

+4.8조원

- (내용) 고유가·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중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하위 70%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~60만원 지급
- (방식) 지방으로 갈수록, 취약계층일수록 보다 두텁게 지원
 -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초·차상위가구는 1차로 우선 지급하고, 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된 후 소득하위 70%에 2차 지급
- (사용처)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

	소득하위 70% (3,256만명)	차상위·한부모 (36만명)	기초수급자 (285만명)
수도권	10만원	45만원(+35만원)	55만원(+45만원)
비수도권	15만원(+5만원)		
인구감소(우대)	20만원(+10만원)	50만원(+40만원)	60만원(+50만원)
인구감소(특별)	25만원(+15만원)		

③ 에너지 복지

+0.2조원

- (에너지바우처) 저소득 기후민감계층* 중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등유·LPG 가구(20만가구)에 +5만원** 추가 지원(+102억원)
 - *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, 장애인, 영유아, 임산부, 한부모, 다자녀 등
 - ** 동절기 대책(25.12월)에서 발표한 평균 +14.7만원 인상분을 포함하는 경우, '25년 대비 '26년 지원 금액은 총 +20만원 상향
- (농어민) 면세유, 비료·사료 구매 지원 등 농어업 부담 완화(+0.1조원)
 -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가(5.4만개소)와 어업인(2.9만명) 대상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(+546억원)
 - 농어민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매비용(+42억원)과 축산농가 사료 구입에 대한 정책자금(0.5→0.6만농가, +650억원) 제공
- (연안화물선) 영세 화물선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선박용 경유를 최고 가격제에 포함하고 기준가격을 초과한 인상분 일부 지급(+106억원)
 - * 1,700원/L를 초과한 선박용 경유 가격의 50% 보조(183원/L 한도, 4월은 한시 70%)

- ① (취약계층) 현 상황으로 어려움에 직접 노출된 저소득층·소상공인·취약 노동자 등의 일상 회복을 뒷받침
- ② (청년)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, 회복·성장·도약 단계별 일자리 확충
- ③ (물가) 서민 생활물가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·문화 할인

① 취약계층 일상 회복

+0.8조원

- (저소득층) 복지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기본 생필품을 지급하는 그냥드림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산(150→300개소, +21억원)
 -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등에게 긴급복지*를 확대(+1.6만건, +131억원)하고, 돌봄서비스도 추가 제공(+2.8만가구, +99억원)
 - * 생계유지가 곤란한 중위소득 75% 이하 저소득 가구 대상(37.5→39.1만건)
 - 복지시설의 냉·난방설비를 지원(165→750개, +128억원)하고,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규보증금 1/3 최소 보장(279억원)
- (소상공인) 위기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*를 확대(4.7→5.5만건, +246억원)하고,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추가 공급(+0.2조원)
 - * 경영진단·멘토링을 시행하고, 폐업예정 소상공인에 점포 철거비(600만원) 지원
- (취약노동자)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등 업계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확대(3.8→4.8만명, +186억원)
 - 지역 주도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확대(9→13개소, +120억원)하는 등 고용위기지역에 선제적 지원
 - 사업주·노동자 대상 체불임금 청산 대출(+899억원)로 실직·해고자의 생계를 지원하고,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확대(+316억원)
- (농어민)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 추가로 소득안전망 구축(10→15개소)

【 스타트업 열풍 조성 : +0.9조원 】

- (모두의 도전) 경진대회를 통해 유망 창업가 선발(300명) 후 사업화 자금(최대 1억원)을 지급하는 **신규** '모두의 창업' 프로젝트 추진(0.4조원)
 - * 연 2회, 1.5만명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추진
 -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한 **혁신 창업가** 등의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전용 **펀드**(+300억원) 및 **저금리 대출**(+0.2조원) 제공
- (모두의 협력) 홀로서기 어려운 초기 기업의 성장을 위해 **대·중견·글로벌기업과의 협업 기회**를 2배 이상 확대(600→1,434개)
 - * 기술검증, 시제품제작 등 협업과제 수행시 최대 2억원의 사업화자금 지급
 - 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AX 솔루션을 선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**신규** 동반성장 바우처 신설(20개사, 200억원)
- (지역 창업) 4대 과기원을 축으로 **신규** 과학중심 창업도시 조성(+0.3조원)
 - 4대 과기원 간 **창업경쟁리그** 개최 및 **전용펀드·실험실**을 조성(+0.1조원)하고, **창업중심대학***을 4대 과기원으로 확산(+240억원)
 - * 재학생·졸업생 대상 창업·보육 프로그램 제공 및 사업화 지원(現 UNIST 1개소)
 - **민간 자본**을 유치한 로컬기업의 **사업화 자금** 확대*(300→450개사), 제품·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**신규** 생활형 혁신 기술 개발(400억원)
 - * 민간 투자금의 최대 3배(2억원 한도)를 매칭하여 정부가 지원
- (인프라) 실패 후 재도전 기업의 성공적인 재기를 위해 **재창업자 전용 자금**(+500억원) 및 **재도전패키지** 물량 확대(185→298개사, +100억원)
 - 컨설팅·자금·인허가 등을 안내하는 **신규** 원스톱 센터(17개소) 구축

【 단계별 청년일자리 지원(10.7만명) : +0.9조원 】

- (진입) 대기업과 연계하여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**신규K-뉴딜 아카데미***(0.1조원) 신설
 - * 대기업 주도로 청년이 선호하는 직업능력개발, 직장적응 프로그램 운영(1.5만명)
 -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을 구직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 확대*(10.5→13.5만명, +786억원)하고, 청년 도전·일경험도 지원(+265억원)
 - * (現) 2년 내 취업경험자 대상 → (改) 쉬었음 청년 대상 추가 3만명
- (구직·재직) 첨단산업 분야 직업훈련 지원을 위한 **내일배움카드**(5→6만명) 및 청년 고용 소상공인에 **정책자금 2배 추가**(+0.15조원)
 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근무자까지 확대하여 지역 내 청년의 근속 유도(5.0→6.5만명, +258억원)
- (일자리 확충) 체납관리단(9,500명), 사회연대경제 일경험(3,500명), 농지특별조사(5,000명) 등 **공익·가치창출형 일자리 2.3만개** 확충

3 고물가 부담 경감

+0.1조원

- (농축수산물) 식료품 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**농축수산물 할인** 지원(+800억원)
- (문화분야) 경기침체시 가장 먼저 소비가 위축되는 문화·관광 업계를 위한 **영화·공연·숙박·휴가 할인**(687만명, +586억원)
 - 지역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숙박업체 지원 추가 물량(30만장)을 모두 인구감소지역에 배정하고, 보조율도 **2배 한시 상향**(50→100%)

구분	①영화	②공연	③숙박	④휴가	합계
내용	1회당 6천원 할인	1회당 1만원 할인	1박당 2~3만원 할인 (연박 5~7만원)	휴가비 50% (최대 20만원)	-
인원	신규 600만명	신규 50만명	30만명	7만명	687만명
예산	361억원	51억원	112억원	62억원	586억원

3

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

+2.6조원

- ① (기업·산업) **수출기업** 비용 경감 및 석유화학·관광 등 **피해산업** 지원
- ② (에너지·신산업 전환) **탄소중립** 투자를 강화하고, **문화·첨단산업**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
- ③ (공급망) **석유·핵심 전략자원**의 안정적인 공급 뒷받침

1 **피해 기업·산업 지원**

+1.1조원

- (수출기업)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**수출바우처***를 확대(0.7→1.4만개, +0.1조원)하고, 중동 현지에 **공동물류센터** 추가 지원(+380개사)
- * (물류) 1,000→5,800개, (긴급) 796→1,363개, (일반) 5,425→6,825개
- **수출 정책금융 7.1조원**을 공급하여 기업의 자금경색 해소

(단위 : 억원)

		공급규모	재정지원	내용
합계		70,500	6,500	
대출	중진공	3,500	3,500	· 긴급경영안정자금(2,500), 신시장진출지원자금(1,000)
보증	신보	25,000	1,000	· 직·간접 피해기업 특례보증 (보증료율 인하, 보증비율 상향 등 조건 우대)
	기보	12,000	1,000	
	무보	30,000	1,000	· 수출기업(8,000), 현지법인(2,000) 유동성 공급 · 원자재 수입대금(6,500), 신시장진출(13,500)

- 중동 수출이 어려워진 수출기업이 대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**해외 인증획득 확대**(630→988개사, +100억원)
- (**피해산업**) 직접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 **저금리 정책자금**을 공급(+0.3조원)하고, 신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**상품개발·홍보**(+306억원)
- 석유화학·철강산업의 고부가 전환을 위해 **기술컨설팅, 재직자 훈련** 등 맞춤형 지원(90→160개, +70억원)

【 에너지 전환 : +0.5조원 】

- (재생에너지) 화석연료를 태양광·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발전설비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(0.9→1.1조원)
 - 햇빛소득마을 대규모 확산(약 150→700개소)을 위해 직접대출과 이차보전을 병행하여 0.4조원 규모의 추가 금융 지원(+160억원)
 - 신규아파트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을 보급(10만가구, 250억원)하고, 건물주택(0.6→0.8만건), 국립대·부설학교(39개교)에 설비 설치(+504억원)
 - AI 분산형 전력망 조성 물량을 확대(20→30개소, +588억원)하여 차세대 전력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도
- (탄소중립)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이 주로 활용하는 전기화물차 추가 보급(3.6→4.5만대, +900억원)
 - 화석연료 사용 절감을 위해 일반가정(2,580→3,580가구)과 사회복지시설(37→74개소)에 히트펌프 보급 확대(+69억원)

【 문화산업 육성 : +0.2조원 】

- (정책금융) 신규청년 콘텐츠 창업에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(500억원) 및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(500억원) 제공
- (영화) 독립영화부터 중예산*, 첨단제작영화까지 유형별 체계화를 통해 촘촘한 제작 지원(78→130편, +385억원)
 - * 대상 범위도 순제작비의 20~80억원에서 20~150억원으로 상향
- (기초예술·관광)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확대(+320억원)로 창작활동 뒷받침하고, 비수도권 청년관광두레(+200개) 조성으로 지역관광 붐업

【 산업·제조 공정 AX : +0.2조원 】

- (산업) 현장에 기반한 **신규** 데이터센터 실증(140억원), **신규** 스마트공장 AX 선도*(750억원) 등 산업 전반의 AI 대전환 도모

* 컨소시엄을 통해 대기업은 보유 기술에 대한 현장 실증, 중소기업은 시스템 고도화

- (제조) 조선·철강·자동차·섬유·화학 등 주요 업종별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데이터화한 후 현장에 접목하여 제조공정 혁신(+800억원)

3 공급망 안정화

+0.7조원

- (나프타) 석유화학산업에 필수적인 나프타의 차질 없는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입비용의 일부를 지원(+0.5조원)
- (석유) 5차 석유비축계획상 '30년 목표(1억 260만 배럴)를 조기 달성하기 위한 비축 물량 확대(+130만 배럴, +0.2조원)
 - 공정한 석유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거래행위를 감시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(+165억원)하고, 유가 공개시스템 고도화(+20억원)
- (전략자원) 희토류 재자원화를 위한 시설·원료 확충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마련(+81억원)하고 자원 안보 강화
 - 중동 지역 의존도가 높은 요소의 수입선 다변화(+39억원)

4 지방재정 보강 등

+9.7조원

- 교부세(금)을 확대(+9.4조원)하여 지방정부의 투자재원 확충
- 통합 지방정부에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지방채 인수 추진(+0.1조원)